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4: 영감, 정경성, 그리고 텍스트의 전달.

테드 힐드브란트

A. 서론 [00:00-00:50]

A. 서론: 신약성경의 기록과 보존

[짧은 영상: AH 결합; 00:00-12:38]

좋아요, 환영합니다. 이제 전환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마카비인, 하스모네아인, 헤롯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유대 종파,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산헤드린 제도, 회당 제도, 디아스포라,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B. 영감 [00:50-2:11]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질문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본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성경과 신약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NIV, NRSV

또는 다른 번역본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을까요? 저는 신약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과정을 추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번역본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NIV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의 과정을 시작했는데, 영감의 과정에는 네 가지 과정이 포함됩니다. 영감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나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사도나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한 후에요.

다. 시성식 [2:11-3:12]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정경 경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수집된 적이 없습니다. 정경 경전은 하나님이 쓰신 책을 수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선지자 홀다를 알고 있으며, 그녀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예언한 또 다른 선지자 아히야가 있고, 그 무렵 선지자 아히야는 열왕기에서 보고됩니다. 우리는 그의 글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썼지만 우리는 잠언 375개 중 약 1/1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000개의 노래를 썼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 한 권과 시편 두 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책과 정경화 과정은 권위 있는 책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은 수집되지 않고 다른 책은 수집됩니다. 이것이 정경화 과정입니다.

다. 전파 [3:12-5:28]

영감을 받고 나면, 신의 말씀에 따라 책들이 한 무리로 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껴야 합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과 신약 모두 손으로 베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신약은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베껴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인간입니다. 서기관들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이 2,000년 동안 베껴 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서기관들이 일찍이 신의 말씀을 베껴 썼습니다. 그들이 베껴 쓸 때, 때로는 철자 오류를 범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오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서기관이 만든 사본을 집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 캐서린 수도원의 시나이 산에 있던 서기관이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우리는 시나이 사본이라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베껴 썼습니다. 그들이 복사할 때, 그들은

다른 재료에도 복사했고, 그것은 이 재료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양피지나 동물 가죽에 복사했다면,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동물 가죽은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파피루스에 복사했다면, 파피루스는 대나무 폐허와 황소 러시의 혼합체와 같고, 기본적으로 그 유기 물질의 섬유가 함께 교차하여 종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유기 식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공기 중에 습기가 있으면 파피루스가 그냥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만 지속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곳에서 온갖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본들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사본들을 수집합니다. 브루스 메츠거와 다른 사람들, 쿠르트 알란드와 같은 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이 사본들을 수집하여 서로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좋아요, 이런 사본이 10개 있고, 저런 사본이 10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집된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본을 평가한 다음 그리스어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알란드 신약이나 UBS 그리스어 신약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본이 어떤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마. 번역 [5:28-6:16]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들을 번역합니다. UBS 그리스어 본문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어와 같이 두 언어 사이를 오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갑니다. 번역자들이 번역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NIV와 다를 것입니다. Living Bible과
다르고, NLT[New Living Translation], ESV 또는 NRSV와도 다릅니다. 각 번역
그룹은 다르게 번역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도 다를 것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의 차이를 고려한 후 언어 간의 번역 과정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프로세스입니다.

F. 영감에 관한 구절들 [6:16-8:16]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런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은 영감에 대한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16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영감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사실 거기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로잡고 옳은 것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이 NLT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NIV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 그는
디모데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할머니가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성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언급한 성경은 칠십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리스인이었고 그리스 성경인 칠십인역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훌륭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21은 영감에 대한 또 다른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본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요점은 예언이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설과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래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했고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과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G. 서면 기록의 장점: 보존 [8:16-9:25]

기록된 기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 끝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것을 구전에서 서면으로 옮기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록된 텍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보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100명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10분 안에 대부분 제가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나와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언가가 기록되면 100년은 쉽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기록되면 보존될 수 있지만 구두로 전해진 것은 전파로 나가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보존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H. 정밀도 [9:25-12:38]

두 번째는 정밀성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 사물은 꽤 빨리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들을 빨리 잡아야 하고, 그들은 지나가고 사물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쓰여진 텍스트가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읽고, 숙고하고,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구문적 문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담론적 특징과 수사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갖 관점이 있고, 당신은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성, 무언가가 쓰여졌을 때, 심지어 이러한 비디오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그리고 저는 이러한

비디오의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는데, 저는 매우 영성하게 말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훨씬 더 정확한 방식으로 씁니다. 무언가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여러분 중 누구라도 대학 논문을 썼다면, 당신은 당신이 쓰는 논문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간결합니다. 말할 때는 종종 제 말을 반복합니다. 글을 쓸 때 제 말을 반복한다면, 영어 교수는 어떻게 할까요? 글세요, 그들은 중복이라는 단어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는 같은 것을 두 번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복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부정적이지만, 말할 때는 대부분 제 말을 반복합니다. 가장 최근의 정치적 담론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같은 화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연방 정부 연설에서 말하는 주요 연설에서도 이러한 문구의 절반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저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사물의 구두 측면”을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밀성은 무언가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면 입소문으로 퍼집니다. 당신이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100명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쓰면 인터넷에 올리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면 1,700만 명이 이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기록하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수백만 부의 사본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무언가를 기록하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퍼질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을 베낄 수 있습니다. 여러 서기관들이 그것을 베낄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곱해지고 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그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사도들은 그것을 신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입니다.

I. 신약성경의 기록: 사도들의 죽음 [12:38-14:48]

나. 신약성경의 기록

[짧은 영상; IM과 결합; 12:38-19:35]

초기 교회가 사도들의 책을 모아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세력이 글을 쓰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로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요? 대부분의

복음서 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복음서 필자들은 5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20년이나 30년 동안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편이나 단편으로 쓰여졌다가 수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는 선사시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50년대와 60년대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복음서 필자들이 기록하도록 큰 추진력이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목격자였습니다.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목격자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목격자였습니다. 요한은 목격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기록하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을 때 제 가족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전 형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이야기가 때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되지 않고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아내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무언가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도들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들을 따라 올라가며 "마태오,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군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것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세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죽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2명은 거의 모두 순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J. 신약성경 쓰기: 지리적 분포 [14:48-15:39]

기독교는 지리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전에는 모든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확인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암송하고 다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다른 장소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록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가져가기를 원했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여 그들에게서 로마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리적 확산은 확산되면서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을 때,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이단들 [15:39-17:17]

또 다른 큰 것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것은 서기 100년 후인 2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단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몬타니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잠깐만요, 신약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과 오류를 분별하기 위해 신약 문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2세기에 영지주의가 성장하여 영이 육체보다 더 우월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해야 할 비밀 지식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문서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단적인 것들에서 기어오르는 이러한 오류를 반박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르키온... 윌슨 박사는 그의 책인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마르키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키온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의 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무시하고 오직 신약만 받아들였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교회에 강요된 이런 종류의 의견을 다루어야 했고 교회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떤 책을 신성하고 신에게서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거부해야 할까요? 마르키온의 의견은 거부되었습니다. 구약은 좋고 윌슨 박사가 부르는 대로 “첫 번째 성약”이라고 불립니다.

ㄴ. 신약성경의 기록: 목회적 관심 [17:17-18:14]

이제 목회적 우려도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서 어떤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면 그는 어떤 책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설교할까요? 어떤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책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메스의 목자나 로마의 클레멘트의 편지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편지는 편지를 쓰고 있던 초기 교부들에게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그 편지들은 초기 교회에 흥미롭고 설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클레멘트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클레멘트는 흥미로운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측면에서 그의 교회에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M. 신약성경의 기록: 박해 [18:14-19:35]

마지막으로, 이건 꽤 큰 문제입니다. 박해입니다. 초기 교회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지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구타를 당했을 때 보듯이 지역 사회는 대개 지역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마태는 이에 대해 요점을 제시합니다. 마태는 로마의

세리였고, 로마의 관점에서 기독교인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 기독교인을 압박한다면 로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주로 지역 사회였습니다. 어떤 책을 위해 죽을 것인가요? 헤르메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고 마태 복음이 있습니다. 헤르메스의 목자 때문에 죽을 것인가요? 헤르메스의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어떤 책을 위해 죽을 것인지, 어떤 책을 위해 죽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어느 책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어느 책이 단순히 인간의 책이고 어느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N. 정경성 [19:35-22:29]

C. 신약성경의 정경성

[짧은 영상; 결합: NR; 19:35-33:57]

이제, 정경성은 어떻게 발견될까요? 그들이 어떤 책이 영감을 받았고 어떤 책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알아낸 방법에 대한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영감을 받았는가입니다. 그 책이 영감을 받았는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쓸 때, 그들은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골로새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22:18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책의 마지막, 묵시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기록한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서 이 말씀을 빼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생명나무에 대한 그의 몫을 빼시리라.”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더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책의 재앙을 자신에게 더하기 때문입니다. 빼면 생명나무를 자신에게서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일어난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4:2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37에서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으로 은사를 받은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정하라”고 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쓴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4:37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고린도전서 14

장에서 쓴 것처럼 그가 쓰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21로 돌아가서 성경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주장을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할까요? 로마의 클레멘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정경에는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ㄱ. 정경성: 이전 계시록 기준과의 일치 [22:29-24:03]

두 번째 기준은, 저는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이전 계시와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정통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은 이전 계시와 일치합니다. 야고보는 “믿음 없이” 무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 어떤 사람도 행위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마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직면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아니요, 아니요, 일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마틴 루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 “진짜 짚더미 같은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야고보에게 질문한 이유는 루터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아서 그는 야고보가 “허튼 서신”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신약의 뒷부분으로 밀어 넣었 는데, 그가 이해한 이전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이 기준에 근거하여 책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는 한 가지 기준인 듯합니다. 그것이 이전의 계시와 일치합니까?

P. 정경성: 예언적 또는 사도적 [24:03-26:01]

여기에 또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예언적이거나 사도적입니까? 예언자나 사도가 썼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자입니다. 모세라고 하면,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다시 다윗은 왕입니다. 신약에서 이 사람이 사도인지 묻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아마도 바울의 감독 하에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은 때가 되어서야 주님께 온 사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형제인 유다와 흥미로운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적입니까, 예언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사도로 승인하셔야 했던 통로를 통해

왔습니까? 많은 위경 고지에서 그들은 복음서를 사도와 연관시킵니다. 예를 들어, 도마 복음서나 베드로 묵시록이나 바울 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상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름에서 권위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의 것 중 하나인 듯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의심을 받은 이유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이 과정을 수강할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큰 신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의심을 받은 이유는 누가 썼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을까요? 아폴로가 썼을까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원칙에 근거하여 의심을 받았습니다.

Q. 정경성: 하나님 백성의 수용 [26:01-33:16]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범주입니다. 초기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베드로후서 3:15에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지만, 먼저 베드로와 바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9장에서 베드로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예루살렘 공의회에 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장면에서 늦게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섬겼듯이 이방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할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니요, 우리는 이 할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코셔를 먹어야 했습니까? 돼지고기나 랍스터와 이 모든 코셔 규칙을 먹을 수 없었습니까?

그들은 그 코셔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까? 바울은 "아니요, 그들은 코셔를 먹을 필요가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직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저는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직접 마주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하니까? 베드로후서 3:15에서 베드로는 바울과 그의 글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으며, 사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드로후서 3:15에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수집품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이 한 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종류의 컬렉션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완전히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바울이 한 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편지에서 그는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역대 최고의 랍비 중 한 명인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매우 재능 있는 사상가였고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았으며 유대교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부 베드로.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는데, 무지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왜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편치라인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왜곡합니다.”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가 다른 성경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반박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은 수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바울이 쓴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매우 중요한 상호 작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15는 훌륭한 구절입니다.

이제 다른 전략을 취해서 디모데전서 5:18을 꺼내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곡식을 밟아내는 동안에 법궤에 망을

씻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내는 동안에 법궤에 망을 씻우지 말라.” 알겠어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신명기 5:4에서 나온 말입니다. “곡식을 밟아내는
 동안에 소에 망을 씻우지 말라.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
 성경에 이르기를 곡식을 밟아내는 동안에 소에 망을 씻우지 말라.” 신명기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신명기 5:4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다음 부분은 “그리고 일꾼은 그의 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누가복음 10:7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신명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 성경을 성경으로 연이어 인용합니다. 둘 다 “소의 입에 망을
 씻우지 말라. 일꾼은 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으로 분류됩니다
 .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는 신명기와 누가를 같은 수준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에는 수백 년 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얻었고 수백 년 후에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와 신명기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미 바울의
 수집품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을 왜곡하여 성경과
 같은 수준에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서기 40년경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65년경에 이미 베드로가 바울의 글 모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R. 정경성: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동적인가? [33:16-33:57]

사람들이 묻는 마지막 질문은 “역동적인가?”입니다. 이 책은 역동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제공됩니까? 이 책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목회적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다서에 대한 질문은 이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몇 가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정경성을 구성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이 문서들을 분석하여 수집되는 문서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S. 순환 문제 [33:57-36:43]

D. 정경성 2편 - NT Antilegomena

[짧은 영상: SV 결합; 33:57-46:10]

이제 유통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에서는
 알려졌지만 빌립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4 또는 2, 3,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는

골로새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바울은 또한 잠시 동안 골로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편지를 공유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 교회에서 그 문서를 복사해서 빌립보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편지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문서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던 다양한 교회에서 그냥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이집트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와 터키에서 이 모든 편지를 썼고, 여러분은 이집트에 있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사본을 받기까지 20년이나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을 보기까지 30년이나 5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회는 이 편지들을 다른 교회로 유통시켰습니다. 그들이 유통되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바울에게서 온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에게서 온 것인지?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 저자 중 누구도 신약 성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빌립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일찍 쓰여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90년대까지는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요, 90년대에 베드로는 65년경에 죽었고 바울은 68년경에 죽었습니다. 사도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훨씬 전인 95/97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신약성경 정경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 정경, 그 문서는 소아시아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서쪽으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져서 유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 문서가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기 훨씬 후나 1세기가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저자 중 누구도 신약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T. 교회가 수집함 [36:43-38:08]

유통 문제--에베소에는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립보가 에베소인들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알았어요? 이제 에베소 인이 있어요. 그런 다음 데살로니가가 있고 빌립보는 데살로니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꽤 일찍 교환했어요. 그때는 어려웠죠. 그래서 각 교회는 책을 받으면서 수집했지만, 이 책들을 교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가서 바울의 편지가 있다고 말하고 복사기 앞에 앉아서 복사하거나 Fed-Ex로 교회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직접 들고 가서 직접 복사해야

했어요. 긴 과정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매우 세심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주변에 유통되는 책을 수집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수집에 매우 세심했고 어떤 책이 신의 말씀으로 여겨지는지 결정하는 데도 매우 세심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세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집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인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서들은 받아들여지기 전에 인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집 과정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U. Canon-서기 2 ~ 4 세기 [38:08-40:01]

다음은 몇 가지 사항일 뿐이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Lee MacDonald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 친구였고, BBR이나 IBR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신약의 정경화 과정과 초기 교부들을 포함한 신약이 수집된 방식, 다양한 공의회와 다양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정경과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에 대해 100페이지 분량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에 대한 이런 종류의 책을 추천합니다. 무라토리 정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모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 170년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신약을 완성한 지 약 80년 후, 75년 정도 후입니다. 75년 후에 그것은 신약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헤르메스의 목자 근처에서 베드로의 지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정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라토리 정경이었습니다.

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는 서기 325년에 대해 쓸 것입니다. 서기 325년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때가-누구든지 서기 325년과 로마 제국을 기억하십니까? 325년은 콘스탄티누스의 날짜입니다. 서기 325년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된 때입니다. 이제 갑자기 황제가 생겼고, 로마 제국의 수장인 기독교인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적대감이나 긴장에서 바뀔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기독교 황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그 무렵에 연구를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호몰로게메나라고 불리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전서, 요한계시록.

V. 안틸레고메나 [40:02-46:10]

또 다른 질문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안틸레고메나"라고 부르는 것을 얻었는지입니다. 이제 안틸레고메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성경의 안틸레고메나는 구약성경에서 의문을 제기한 다섯 권의 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티"는 "반대하다"를 의미하고 "레고메나

“는 “말하다” 또는 “반대하다”를 의미합니다. 반대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다섯 권의 책이 있었고 그게 무엇일까요? 잠언은 바보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다음 구절에는 바보에게 대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4:5에서는 바보에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책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노래는 성적인 이유로 초기 책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물의 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스겔서는 묘사된 성전 산이 너무 커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서도 하나였습니다. 전도서 “허무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말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비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비관적인 책입니다. 큰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안티레고메나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또한 안티레고메나(Antillegomena)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받는 책과 의문을 받는 책입니다.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의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을 읽은 후에 야고보서를 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바울의 모든 감정을 읽은 후에 야고보에게 다가갑니다. 야고보에게 다다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함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랑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나타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야고보는 의문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매우 이상한 책입니다. 미가엘과 천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다서에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의 형제였고 베드로후서와도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매우 유사한 책이며 실제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사이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서가 정말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유다가 포함된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요한2서와 요한3서는 작은 책일 뿐이며 일부는 관련성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부된 책; 바나바서, 헤르메스의 목자, 베드로의 목시록 및 기타 책은 거부되었지만 일부는 답변이 있고 일부는 325에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시나이 사본을 찾고 계시다면 시나이 사본에는 최고의 신약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최고의 사본 중 하나가 시나이 사본이며 신약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과 함께 그룹화되어 있는데 왜 서신이 그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로마서가 먼저이고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연대순으로 정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전서나 갈라디아서가 먼저였을 것입니다. 왜

로마서이고 고린도전서는 왜일까요 ? 우리는 고린도 전서 와 고린도 후서 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큰 편지가 먼저 놓였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더 크기 때문에 먼저 놓였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든 말든 바울 서신의 순서는 크기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서신”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 계시록은 세상 의 종말에 대한 묵시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종말에 대한 좋은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한 신약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전체 신약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초기 공의회에는 동방 대 서방이 있습니다. 동방 교회 대 서방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입니다. 동방과 서방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러한 책인 신약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27권입니다. 따라서 397년까지 이러한 책이 엄격하게 신약의 정경이라고 말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97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수집품이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의 수집품... 여기저기 조금씩요. 교회는 처음부터 이것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397년에 그것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교부 중 한 명인 아타나시우스는 367년에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초기 교부였습니다. 그는 신약성서 27

권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367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백 년 후이고 신약성서가 쓰여진 지 50년 후에, 그것은 모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책들을 수집하고 유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물들이 어떻게 모였는지에 대한 정경화 과정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책을 수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책을 선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하고 퍼뜨리는 데 신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 사본 [46:10-48:54]

E. 텍스트 전송 - 구두 및 서면

[단편 영상 : WY 결합; 46:10-59:15]

이제 바꿔 봅시다. 하느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영감의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양한 서신을 수집했는데, 그것은 정경화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어떤 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수집되고 어떤 것이 수집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거부됩니까? 이제 27개를 모두 수집한 후에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복사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과 전 세계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사본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사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같이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댄 월리스 박사입니다. 댄 월리스 박사는 제가 가르칠 수 있었던 가장 열정적인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정말,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 사본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스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지금 그리스 사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11년이나 2012년의 사본입니다. 그는 이스탄불로 가서 이스탄불에서 이 사본을 꺼내 세상에 공개하고 싶어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본을 찾고 있습니다. 댄은 그 사본을 찾고 있는데, 그가 지금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본을 비교하면 사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브루스 메츠거 프린스턴 같은 사람들은 평생 사본을 읽어서 원본의 정확한 완벽한 텍스트를 파악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필요한 다른 사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발견되어 모아진 서기관들이 베껴 쓴 이 사본들을 상관시킵니다. 이 학자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모아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끼는 것에 대해, 기독교 서기관에 대한 사실을 언급해야겠습니다. 기독교 서기관 대 유대인 서기관. 유대인 서기관은

훌륭했습니다. 유대인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품질 관리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문서를 읽고 모든 문자 "A"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27개의 A가 있어야 했습니다. 페이지에 27개의 A가 없다면 원고를 찢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성경을 베끼는 유대인 서기관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견제와 균형, 교정, 그리고 당신의 독서를 균형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X. 기독교 서기관들 [48:54-50:34]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1)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처럼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사도나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이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문적인 서기관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물건을 베끼거나 서기 기술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고 아마도 가장 파괴적이었고 가장 처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지역적인 맥락에서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박해를 받고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면 좋은 사본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서기관이 되고 좋은 사본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서기관과 유대인 서기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는 왕에게 율법을 베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개인적으로 사본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율법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축제 때 그들은 유대인 축제의 다양한
 내용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고 공유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서기관들이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 서면 대 구두 [50:34-59:15]

이제 기록된 기록과 구전된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기록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 설교가
 있습니다. 올리브 산 설교와 예수께서 설교하신 다양한 설교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관복음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는 고라진에서 베데스다로,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으로 이동하셨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께서 같은 설교를 두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설교를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테네시 주 브리스톨에 있는 그레이엄 성경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테네시에 있고,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아내를 부양해야 했고, 트레일러가 있었고, 제가 트레일러에서 사실상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어떤 남자의 소를 돌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저는 순회 설교자였고, 그래서 다섯 개의 다른 교회를 다니며 한 곳에서 설교하고 다음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5주 동안요. 저는 다섯 개의 교회를 돌았고, 그런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각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했고, 제 아내는 항상 당신이 처음 설교할 때는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훨씬 나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섯 번째가 되면 당신이 자신의 설교에 지루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또는 적어도 다른 측면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든 칼리지에 그레이엄 버드 박사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고 고전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같은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한번은 클래식 곡으로 연주하고 클래식한 방식으로 연주하다가 갑자기 “좋아, 같은 노래를 다시 연주해 볼까” 하고 결심하고, 이번에는 재즈로 연주합니다. 같은 노래를 연주하지만, 이제는 재즈처럼 들립니다. 그런 다음 같은 노래를 다시 멈추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가스펠 곡으로 연주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같은 노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주하는 방식은 그가 함께하는 청중을 알려줍니다. 클래식 청중이 있다면 그는 클래식을 연주합니다. 가스펠 청중이 있다면 그는 가스펠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것을 가지고 재즈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유를 좋아하는데, 예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중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용은 같았지만, 청중의 필요에 따라 형태와 모양이 달랐을 것입니다 .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설교 중 일부에서 그가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전과 서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 기억나세요?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선생님이었고, 그의 학생인 플라톤이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은 큰 소크라테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플라톤이 자신의 생각을 소크라테스에게 읽어준 것일까요

?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소크라테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운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플라톤, 그리고 한 세대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전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은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쓰셨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그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 설교와 올리브 산 설교(마태복음 24-25장)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무언가를 들었을 때 기억합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답이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의 것을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들어가서 빈 공간을 통과하여 반대쪽으로 나오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방금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시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 듣고 기억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Gerhardson이라는 사람이 쓴 *Memory and Manuscripts*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고대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거의 단어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구전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오디오를 기억하도록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
 이집트의 서기관은 아이들이 글을 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그냥 적어두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서기관은 잊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 미시간 시티에서 10년 동안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가르쳤는데, 거기에는 프로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로보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DMZ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무장 지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무장 지대 뒤에 떨어졌고 무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과 치명적인
 손을 가지고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을 쏘면 소리가 나서 그가 거기에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비무장 지대 뒤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진
 뒤에 떨어졌고 그는 손과 칼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프로보는 제
 반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인이었고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항상 저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말 좋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3, 4, 5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논쟁을

별었습니다. 저는 그가 구약성경을 듣고 있고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한 번도
 적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좋아, 프로보, 너는 자신이 핫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첫 시험을 치르면 너는 이 시험에서 망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썄요, 저는 첫 시험을 치렀고 프로보는 그 수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에게 가서 “이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한 번도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속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것 위에 있었고
 , 그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훈련을 받았고, 사진 같은 귀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 명령은 이 무선 송신기를 통해
 구두로 전달되었고, 그는 정확히 무엇을 명령받았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하도록 스스로 훈련했고, 제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제가 한 강의 중 일부를 단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훈련했기 때문에 단어 그대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Ger
 hardson의 책 *Memory and Manuscripts* 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을 기억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구전 문화였습니다. Walter Ong과 다른 사람들은 구전이
 어떻게 2차적인 구전으로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현대 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에서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돌아가서, 예수 는 구전으로, 예수는 구전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전 매체는 서면 매체와 다릅니다. 비디오 매체라 하더라도 여기서 얻는 것은 서면 매체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Z. 서기관과 사본: 소문자, 대문자, 파피루스 [59:15-68:26]

F. 서기관과 사본

[짧은 영상; Z-AB 결합; 59:15-75:02]

이제 서기관과 사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본은 세 가지 유형의 사본으로 나뉩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대의 신약 성경 사본을 수집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본으로 나뉩니다. 우선, 소문자가 있습니다. 소문자(소문자, "mini"는 작다는 뜻이고 "scules"는 글을 뜻함)는 일종의 필기체입니다. 수업에서 노트를 할 때 필기체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기체, 낙서 스크립트, 일종의 필기체, 소문자 필기체입니다. 이 소문자는 서기 500년경에 쓰여졌고, 많은 사본이 서기 1000년경에 쓰여졌으므로, 이는 기원전 1,000년 이후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어 사본을 쓰고, 서기관은 그리스어 사본을 소문자로 베끼고 있으며, 이런 사본이 수천 개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숫자 체계가 1099, 1087, 또는 2300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은 그저 그들에게 숫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문자마다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 2800개 있고, 알겠어요, 그리고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제 소문자는 가장 최신이고, 서기 1000년에서 나왔고, 가장 최신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다른 배치를 찾았는데, 약 300개의 언셜 사본입니다. 언셜 사본은 대문자 사본입니다. 이것들은 대문자 사본이고, 여기 있는 것은 "A"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호를 주는지 보세요. 그들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A"는 Alexandrianus와 같고, "b"는 Vaticanus입니다. Alexandrianus는 아마도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요? Vaticanus는 로마의 바티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Sinaiticus입니다. 시나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문자인 알레프가 있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견되었을 때 매우 이른 시기입니다. 사실 19세기 후반, 1865년경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D"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언셜 사본은 서기 300-500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언셜 사본은 그 당시의 소문자 사본보다 더 일찍 나왔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소문자와 언셜체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언셜체는 모두 대문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셜체 사본에는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으므로 단어가 모두 앞뒤로 배열되어 있고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 읽기 어려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어를 나누는 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문자와 언셜체는 우리의 가장 좋은 사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나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사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약이
 언설체 사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19세기, 1800년대에야
 발견 되었습니다 .

이제 파피루스는 글쓰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여진 재료의
 종류입니다. 많은 언설은 양피지라고 불리는 동물 가죽에 쓰여졌고, 동물
 가죽은 가죽에 쓰여졌습니다. 파피루스는 기본적으로 황소와 대나무를 합친
 것과 같은 재료입니다. 그것은 꽤 키가 크고, 그들은 섬유를 이리저리 밀어서
 종이를 만들고, 그들은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종류의 종이를 만듭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유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문화권의 파피루스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백 년이고 공기 중의
 습기, 습도가 그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이집트가 너무
 건조해서 파피루스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피루스를 발견했고,
 그들은 이것에 P52, P46과 같은 번호를 붙였고, 약 96개의 컬렉션이 있고,
 실제로 이 파피루스 조각의 훨씬 더 많은 조각들이 있고, 문제는 파피루스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서지기 쉽습니다. 유기 물질에 쓰여진 것이 200년
 후에 상상해보세요. 매우, 매우 부서지기 쉽고, 그냥 깨집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집어 올리면 그들의 손에서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 연대는 서기 120
 년에서 300년이고, 그것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P52와 같은 일부 초기
 사본이 서기 120년에서 1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살았던 때로부터 30년 이내입니다. P52에는 이집트에서 온 요한복음 18장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 그들은 에베소에서 가져와야 했고, 아마도 요한이 살았던 곳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때로부터 30년 후에 이집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30년 후에 쓰여진 신약성경의 일부를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브루스 메츠거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그는 편집자입니다. 그는 모든 사본을 가져와서 무게를 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파피루스가 있는데, 얼마나 이른지 보시나요? 좋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책 전체에 있는 작은 사본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52의 사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매우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단편적인 것을 보실 수 있고, 어떻게 끊어졌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재료의 특성 때문일 뿐입니다. 파피루스 식물의 갈비뼈의 구전 가닥을 실제로 볼 수 있고, 식물의 갈비뼈가 여기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거기에 쓰여진 그리스어 문자도 볼 수 있고, 사실, 저는 그 단어가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카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이"라는 단어이고, 그리스어로는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8장 31절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P52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왔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서 요한이 살았던 30년 후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시나이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시나이 사본은 벌레 사본입니다. 시나이산에서 왔습니다. 시나이로 내려간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1865년경의 행방이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대 어딘가입니다. 그리고 티센도르프가 여러 번 내려간 후, 그는 이 사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도사들이 사본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태웠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그는 이 사본을 구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수도사들로부터 사본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수도사들은 그가 시나이 반도 사본을 훔친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1860년대에 시나이 수도원에서 사본을 꺼내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언셜 사본입니다. 모두 대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대문자이고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있지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여기에 "eid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나는 보았다"는 뜻이고 그는 계속합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단어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므로 읽으러 갈 때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분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이 반도 사본의 사본입니다. 파피루스, 소문자, 그것들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보죠? 그래서 브루스 메츠거와 같은 편집자는 이것들이 이 방식에서는 같고, 이것들은 이 방식에서는 모두 같다고 말해야 하며, 우리가 번역할 기본 그리스어 텍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번역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시나이 반도의 확대본이 있고, 이것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기오스 테트”가 있고, 이것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스 우라노스” 그리고 이것은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단어가 함께 이어지고, 그것들이 모두 대문자입니다. 이 시그마는 지금 α 처럼 보입니다. 시그마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과는 다른 기호이지만, ϵ 는 시그마였고, 이것은 *kai* 입니다. 어쨌든, 이건 주기도문의 일부예요. 모든 단어가 함께 이어지고,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꽤 깔끔하죠.

AA. 기타 그리스어 사본들 [68:26-73:02]

이제 신약성서의 외부 소스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약 5,000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 사본이 있습니다. 시나이산의 성 캐서린 수도원은 186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파피루스는 서기 125년경에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기 125년에 파피루스가 있고, 파피루스는 다이스만이 발견했고, 그 중 일부는 20세기 초인 1890년경, 1910년경, 1880년경과 1920년 사이에

파피루스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피루스가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이 구약성서와 칠십인역,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를 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어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전 그리스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칠십인역의 그리스어를 그들이 부르는 성령 그리스어라고 제안했습니다. 성령께서 칠십인역과 신약성경을 위해 특별히 고안하신 특별한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어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스만과 그 사람들이 188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 파피루스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그들은 신약성경이 전혀 성령 그리스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파피루스에 있는 성령은 많은 일상 문서였습니다. 이혼 문서, “이 사람이 나에게 100달러를 빚졌다”는 문서, 그리고 그저 일상적인 거리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것은 주로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후 300년까지의 코이네 그리스어였고, 코이네 그리스어가 그 당시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을 제기하고, 저는 이 요점을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자주 언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십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먼지”를 뜻하기 때문에 아담을 “먼지투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아다마* (חַוְּה) 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브의 이름은 "하바"입니다. " 모든 살아있는 어머니", "살아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2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그분과 대화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때, 히브리어는 기원전 1800년경부터 내려온 가나안 방언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어는 가나안 방언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엘 시대에 바빌론으로 갔을 때, 아람어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어로 바꾸셨고, 그래서 구약성경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 년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로 바꾸셨습니다 . 신은 언제나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그리스어든.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언어는 디지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디지털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로운 언어,

디지털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쨌든, 알파벳은 26개인데, 디지털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디지털 알파벳은 0과 1 두 개입니다. 0과 1로 문자처럼 쓸 수 있고, jpeg 이미지처럼 그림을 쓸 수 있고, mp3, 오디오, 이 H. 264 mp4 비디오처럼 비디오를 쓸 수 있습니다. 1과 0으로 이 모든 매체를 탐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B. 그리스어, 라틴어 불가타, 시리아어, 콥트어의 번역 비교 [73:02-75:02]

어쨌든, 그리스어 사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5,000개의 그리스어 사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모든 사본을 한데 모아서 비교하여, 어디에서 불일치하는지, 어디에서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사본은 서기 125년, 즉 사도 시대로부터 30년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기원후 400년경에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전환이 있었을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베들레헴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대부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라틴어 불가타는 기원후 400년에서 기원후 1400년, 1500년경까지 1000년 동안 사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수도사들이 라틴어 불가타로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틴어 불가타는 10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약 8000개의 라틴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틴어 사본과 그리스어 사본을 짝지어 놓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은 더 오래되고 더

독창적이지만 라틴어 사본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중 8000개와 기원후 400개가 제롬의 사본입니다.

다른 초기 버전도 있습니다. 콥트 교회는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정도 동안 콥트 교회가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콥트 교회는 이집트에서 1000년 이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콥트어 버전을 가지고 있고 시리아어 버전도 있습니다. 아람이나 시리아에서 온 시리아어 버전을 가지고, 우리는 시리아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콥트어와 그리스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어를 비교하고 어디에서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A C. 초기 교부들의 인용문과 성서일과집 [75:02-76:35]

G. 서기관과 사본들 2부

[짧은 동영상; AC-AF를 결합합니다. 75:02-86:58]

우리는 초기 교부들의 인용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항상 신약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제 초기 교부들이 그것을 인용할 때, 그가 그것을 잘못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단어를 놓쳤거나 아마도 그것을 의역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의역할 때 단어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할 뿐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은 단어 그대로 인용할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꺼내서 초기 교부들의 인용문을 꺼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우리의 언셜 사본, 파피루스 사본, 그리고 우리의 소문자 사본에 있는 것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말할 것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그것에 어떻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러진 1000개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독서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서 독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교회의 찬송가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Gordon Hugenberger 박사와 함께 보스턴의 Park Street 교회에 갑니다. 찬송가 책 뒷부분에 이런 성경 독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성경 독서는 성서 독서이고, 교회를 위해 편찬된 특별한 독서로,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다른 계절에 읽힙니다. 기도와 회개, 위로 등에 대한 다른 독서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꺼내서 함께 모을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초기 교회 성서 독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초기 사본, 소문자, 영설체, 파피루스에 있는 것과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를까요?

서기: 신약성경과 다른 고대 사본의 비교 [76:35-78:22]

이제 신약성경을 플라톤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서기 900년경의 플라톤에 대한 약 7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30년 이내에 서기 1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약성경의 5,000

0개 그리스어 사본과 그 차이를 보세요 . 플라톤은 기원전 400년에 살았고,

우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사본은 서기 900년에 나온 것입니까? 이

데이터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성경의 새로운 사본을

발견했듯이 플라톤의 새로운 사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과

몇 년 전의 것이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 7개, 소수의 사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5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서기 1100년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를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를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원전 300년 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초기의 가장 좋은

사본은 서기 1100년입니다. 약 5~6개 정도만 있습니다. 소수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5,000개가 넘는 그리스어 사본이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매우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신약성경이 원래 쓰여진 때인 50, 100년 이내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약성경 사본 증거가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초기이며 그것과 같은 다른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할 만한 다른

고대 문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매우 확신해야 합니다.

AE. 언셜 원고 계열 [78:22-84:02]

이제 이 사본들이 나오면 그리스어 사본을 살펴보죠. 사본을 모아서 수천 개의 사본을 모아서 필사자들이 복사한 사본을 가족으로 그룹화하는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부모 사본이 있고, 부모 사본은 한 필사자, 두 필사자, 세 필사자, 또는 네 필사자가 복사합니다. 하지만 이 네 필사자는 모두 그 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다섯 번 복사하면 다섯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자녀에 오류가 있다면, 원래 사람이 잘못 복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there"를 철자했고, "thier"를 철자했고, 철자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다섯 명의 사람들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한 것과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들을 가족으로 그룹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가족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가족으로 간주되는 uncials의 가족이며, 세 개의 큰 사본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 가지 큰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이 문서에 근거합니다. Codex Vaticanus는 문자 "B"인 Vaticanus가 주어지고 서기 300년경인 4세기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코덱스가 될 것입니다. 코덱스는 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기 1

00년경 이전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서기 100년경 이전에는 두루마리에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후 서기 100년경과 그 이후에는 책으로 묶인 책 또는 코덱스가 등장했습니다. 두루마리와 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두루마리에 있는 무언가에 접근하려면 스크롤해야 하고, 뒤집어야 하는 크고 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이 있으면 거의 즉시 접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책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본되어 있고 원하는 곳으로 뛰어들 수 있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기 100년경에 책이나 코덱스가 유행했습니다. 두루마리에서 책으로의 전환이 있었는데, 바로 그 무렵인 1세기 무렵이었고, 양쪽에 엉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나이 사본은 다시 300년대, 400년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연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A" 문자이고, 5세기 400년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큰 언셜 사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가문으로 여겨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의회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의 책을 수집한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책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컬렉션에서 유래했을 겁니다. 제왕절개 가문과 서양 가문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가문이 우선인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본을 받아서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제왕절개 사본은 조금 나쁩니다. 서방 사본은 조금 낫습니다.
 비잔틴 사본은 비잔틴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훨씬 후대일 겁니다.
 비잔틴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다시피 600년대, 700
 년대에서 1000년까지 서기 1000년까지 서기관들이 점점 더 많은 사본을
 베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박해받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 교회가 많은 사본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사본은 종종 Textus Receptus 라고 불립니다 .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T
 R, Textus Receptus 또는 Majority Text라고 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문자가 너무 많아서 Majority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보통 소문자입니다.
 이런 소문자 텍스트는 수백 개나 수천 개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2~3,000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 텍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텍스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텍스트가 있지만 훨씬 더 늦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다른 텍스트보다 늦었습니다. 다른 텍스트는 더
 일찍, 훨씬 더 일찍입니다. 우리는 3, 4, 500년 더 일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다수입니다. Textus Receptus
 는 킹 제임스 성경의 기반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 킹 제임스가 후원했고, 그들은 40, 50, 60명의 번역자를 고용했고,
 기본적으로 그들을 고용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번역이고, 매우 잘 되었습니다. 1611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1611년,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보스턴으로 건너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620년 메이플라워와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9년 후, 그들은 미국에 있었고, 사람들이 왔고, 순례자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대부분의 텍스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자들은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나이 사본은 1865년경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셜 사본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300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 번역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문자가 가장 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 1000년에 나왔으므로 훨씬 늦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나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 개의 문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자들은 사본을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나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AF. 원고 평가 [84:02-86:58]

다음은 사본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입니다. 이는 프린스턴 대학의 브루스 메츠거와 같은 사람이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두

개의 사본이 있고 서로 다른 판독이 있으며, 하나는 어떤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글쎄요, 한 가지 방법은 사본이 더 일찍일수록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1200년에 쓰여진 문서보다 200년에 쓰여진 문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1200년에 쓰여졌다면 여러 번 복사되었고, 매번 복사될 때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200년 이전의 것은 한두 번도 복사되지 않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일찍일수록 더 좋습니다. 항상 진실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지리적으로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스턴에 천 개의 사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텍스트를 한 가지 방식으로 읽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있는 천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온 다섯 개의 사본, 필라델피아에서 온 다섯 개의 사본, 마이애미에서 온 다섯 개의 사본, LA에서 온 다섯 개의 사본, 시애틀에서 온 다섯 개의 사본, 댈러스에서 온 다섯 개의 사본, 그리고 여섯, 일곱 개의 다른 장소에서 온 그 30개의 사본이 모두 "그러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때" 대신 "for"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스턴에 있는 천

개의 사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들이 모두 LA에서 시애틀, 댈러스, 필라델피아, 마이애미로 퍼져 있다면, 그것들이 모두 퍼져 있다면 그것들이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반면에 보스턴에 원고가 천 개 있다면, 네, 보스턴에 원고가 더 많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서로를 베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오류가 천 번이나 재생산되고, 재생산되고,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더 넓게 퍼져 있을수록 정확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원칙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족 유형입니다. 가족을 확인하세요. 알렉산드리아 가족은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 비잔틴 가족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비잔틴 가족은 다수 텍스트입니다. 대부분 소문자입니다. 늦었고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초기의 uncial 텍스트이며 정확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따라서 가족과 가족 유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G. 서기관 오류의 종류: 시각과 청각 [86:58-97:26]

H. 서기관의 오류

[짧은 영상; AG-AI 결합; 86:58-101:58 끝]

이제 이 섹션은 꽤 재밌을 겁니다. 이것들은 서기관들이 저지른 오류의 종류이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베끼는

서기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펜과 잉크를 주고, 종이 한 장을 주고, 종이 두 묶음을 주고, 여러분은 신약성경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세요. 400~500페이지를 손으로 베끼면 어떨까요? 손으로 베끼면서 어떤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겠습니까? 우선, 시력의 오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앞에 원고가 있는데, 그것도 손으로 쓴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글자를 혼동할 수 있고, 여기 아미크론과 시그마라는 글자가 있는데, 둘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두 글자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를 혼동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써서 글자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어에서 r과 r은 제 필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Mann"이었고, 제가 철자를 썼고, 노트에 입력했을 때는 "M ar r"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Mann이 아니라 Marr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n"과 "r"이 제 필체로 혼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와 그런 종류의 것들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Homoeoteleuton, Homoeoteleuton이 무엇인가요? "Homo"는 같다는 뜻이고, "teleuton"은 그리스어로 "telos"에서 유래했으며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omoeoteleuton은 같은 어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영어: 페이지를 복사해서 넘겨보았는데, 같은 단어가 여기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데, 글을 다 쓴 후에 눈이 페이지로 다시 점프하고, 여기와 같은 어미가 여기 아래에 있고

, 눈이 페이지를 아래로 점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개나 네 개의 구절을 건너뛸 겁니다. 같은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Homoeoteleuton, 같은 어미 이고 눈이 페이지를 아래로 점프하는 이유는 여기에 와서 쓰기 위해 왔고 뒤로 점프했을 때 페이지 아래로 점프했기 때문이며, 세 개나 네 개의 구절을 건너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다른 사본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 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방금 이 Homoeoteleuton을 했고, 그는 여기에서 비슷한 어미 때문에 페이지를 아래로 점프했습니다.

하플로그래피는 한 번 쓰여졌지만 두 번 쓰여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반복해서 말한 구절이 있을 수 있고, 그는 두 군데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서기관은 한 번 쓰고 나서 돌아가서 오, 방금 썼어요라고 말하고는 건너뛸 겁니다. 두 번 쓰여졌어야 했지만, 한 번만 쓰여졌습니다.

그 반대는, 그리고 이게 더 빈번한데, 필사자가 무언가를 한 번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타이핑할 때, 한 줄을 치고 여기에 타이핑하고 돌아와서 같은 줄을 다시 타이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 번 타이핑하는 겁니다. 이것을 dittography라고 부르는데, "ditto"와

비슷합니다. 두 번 썼는데, 필사자가 두 번 베껴 썼지만, 한 번만 써야 했지만, 그냥 반복했습니다. 눈이 줄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타테시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 몇 명이 이 단어 "thier"를 철자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e"와 "i"를 바꾸었습니다. "e" 앞에 "i"를 쓰고 "c"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타테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글자를 바꿔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thier"로 철자된 것을 본다면 헛갈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사본을 본 적이 있고, "thier"로 철자된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저자가 글자를 바꾼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메타테시스 문제는 보통 해결하기가 꽤 쉽습니다.

"퓨전"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시나이 반도에서 본 언설체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퓨전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분리되어야 할 때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히나요? CHRISTISNOWHERE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없다" 또는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있다"인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디에도 없다"로 나누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로 나누느냐에 따라 정확히 같은 어근에서 읽힙니다. 따라서 이것은 퓨전의 예입니다. 분리되어야 할 것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분열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할 때 그것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융합은 두 단어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그래서 이것들은 시각의 오류입니다.

발음 오류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heir"이라는 단어를 적어 보세요. "their"이라는 단어를 적어 보세요. there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their"은 어떻게 철자할 수 있을까요? "Their"로요.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There"도 철자가 가능합니다. "their"과 "there"의 발음 차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there"는 "they're"로 "they are"를 의미합니다. Their book or their car or they're here. There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어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auton"으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autwn"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auton", "autwn"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기관들 앞에 서서 그들이 그에게 구두로 받아쓰게 하고, 그가 outone이라고 말하면, 그 서기관들은 그것이 이 auton으로 쓰여졌는지 저 autwn으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발음 오류일 겁니다.

마음의 오류도 있습니다. 마음의 오류 중 하나는 동의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필사본을 썼고, 제가 들을 때 가끔은 강의를 듣고 타이핑해야 합니다. 제가 흥미로운 점은 종종 제가 살펴보고 그들이 단어를 잘못 타이핑하고 동의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Vannoy 박사나 MacRae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른 단어를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어를 대체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런 종류의 자동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때때로 작가들은 성경의 특정 텍스트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고, 저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 욥아. 하나님이 네 자식을 빼앗아 가셨고, 네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셨고, 네 몸에 종기가 생겼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 글썄요, 모든 사람이 그 텍스트가 실제로 “신을 저주하고 죽으라”로 읽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을 찬양하고 죽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신을 저주하다”라고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신을 찬양하다”라고 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집어야 하지만, 그것을 조화로운 부패라고 합니다.

혼동. 흥미로운 질문인데, 성경에 단어를 더할 것인지, 아니면 빼버릴 것인지요? 여러분이 서기관이고 사본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교회”라고 쓰여진 부분입니다. 한 사본에는 “주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고,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사본에는 “주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고,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100년 후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서기관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 사본에는 “주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고,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100년 후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서기관은 무엇을 했을까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는 사본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다른 사본에는 “주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느 사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를 발견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본문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내용을 삭제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나중에 “주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제목은 원래 “요한의 묵시록”이었고, 그다음에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묵시록”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묵시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제목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커지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긴 것이 맞을까요, 짧은 것이 맞을까요? 짧은 독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돌아가서 긴 글은 아마 옳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짧은 글부터 다시 쓰는 거죠.

AH. 변형 평가 규칙 [97:26- 99:15]

이제 분산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원고가 있고 분산이 서로 다릅니다. 분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요? 메츠거 편집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더 어려운 판독을 선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독입니다. 필사자는 보통 의미를 갖도록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독을 선호합니다. 필사자는 보통 원래 판독이 더 어려울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듬었을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은 독서가 선호됩니다. 텍스트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독창적일수록 더 짧은 독서일 가능성이 큼니다. 이제 편집자라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뿐입니다. 짧은 독서가 일반적으로 선호됩니다. 항상 짧은 독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천 개의 원고를 검토한 후 발견한 규칙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독서가 선호되고 짧은 독서가 선호됩니다.

¹ 서를 보면 "alhlwn" "one another"라고 쓰여 있을 때, 저자의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독서가 있습니다. 요한은 "one another"라는 단어를

모든 곳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 사본에는 "one another"가 있고 다른 사본에는 없다면, 아마도 "one another"일 것입니다. 요한의 글쓰기 스타일과 맞기 때문입니다. "Amen, amen legw humin"-"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는 요한이 사용하는 또 다른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아멘, 아멘"이라고 쓰여지자마자 "legw humin"이라고 쓰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항상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자의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독서가 선택됩니다.

AI. 신약성경의 3대 본문적 문제: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8장, 요한일서 5:7 [99:15-101:55]

이제, 신약성경에는 문제가 있는 본문의 세 가지 큰 예가 있고, 이 세 가지 큰 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사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5,0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크고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사본들 사이의 대부분의 문제는 콩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thier"와 "their"의 철자 차이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감적 변형 중 어느 것도 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 모든 질감적 변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줄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 9절과 그 이후에 마가복음의 끝에서 중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끝 부분은 본문 비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 간통죄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돌로 치어 죽이려 하자 그들은 예수께 왔습니다. 그녀가 돌로 치어 죽여야 한다면, 그녀는 간통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 먼저 돌을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그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통죄에 대한 페리코페[이야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것은 요한일서 5:7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런데, 삼위일체가 이 구절에 달려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구절에서 삼위일체를 확립했지만, KJV를 사용하면 이 구절이 요한일서 5:7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신약에서 이런 질감의 변화가 있는 큰 세 곳인데,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eanne Beedle 과 Aysha DeSilva 가 필사함

Jen Straka가 편집함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